

‘임실N치즈축제’ 본격 시동

군, 준비상황 보고회 열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점검 나서

국내 유일·국내 원조 치즈를 테마로 한 ‘2026 임실N치즈축제’가 한층 더 새로워진 모습으로 관광객을 맞이한다.

임실군은 지난 4일 한독수 군수 주재로 각 국실과장, 축제 제전위, 대행사, 유관기관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올해로 제12회를 맞는 임실N치즈축제는 ‘치즈, 행복을 늘린다! 세상을 잇다!’를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마을, 임실을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2023 한국 관광의 별’에 선정된 임실치즈테마파크와 치즈 놀이기 체험의 대표 장소인 임실치즈마을은 물론, 대한민국 치즈의 선구자 지정환 신부의 발자취를 간직한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공장과 임실성당이 위치한 임실을 일원까지 축제 공간을 대폭 확대한다.

축제 콘텐츠 역시 대폭 새로워진다. 기존의 단순 관람형 프로그램은 과감히 줄이고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체험형 콘텐츠를 대폭 확대해 축제의 재미를 한층 높인다.

치즈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우유를 활용한 △유청 죽육 밀링체



임실군은 지난 4일 한독수 군수 주재로 2026 임실N치즈축제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고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면밀히 점검했다.

험, 수습 미터 길이의 △대형 릴레이 치즈샌드위치 만들기, 우유 거품 속에서 환금 치즈를 찾는 △밀크버블 페스티벌 등 남녀노소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또한,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임실N치즈 와인&나이트 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여 낮뿐 아니라 밤에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축제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임실N치즈 뷔페밥 퍼포먼스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외국인 치즈요리 경연대회도 새롭게 선보인다.

또한, 축제장 일대를 수놓는 천만송이 국화와 유령형 장미원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볼거리를 선사한다.

여기에 맞춘 임실 한우와 읍·면 생활개선회가 정성껏 준비한 향토음식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임실만의 역사문화축제에 미식의 즐거움까지 더해 예정이다.

한독수 군수는 “임실하면 치즈, 치즈하면 임실, 이 한 문장에 대한민국 치즈의 역사와 문화가 그리고 임실군민이 흘린 땀과 자부심이 스며있다.”며 의미를 더했고, “치즈의 성지에서 열리는 ‘2026 임실N치즈축제’는 대한민국 치즈의 역사를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과 함께 나누는 기적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의회와 집행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지면, 송동면, 대강면 일대의 농경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상황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남원시의회, 농업용수 확보 총력

집행부·한국농어촌공사와 간담회 갖고 해법 모색

남원시의회와 집행부, 한국농어촌공사가 수지면, 송동면, 대강면 일대의 농경지가 극심한 가뭄으로 타들어 가는 상황 해소를 위해 실효성 있는 긴급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남원지역은 체감온도가 40℃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지는 한편, 강수량은 턱없이 부족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올해 남원지역 누적 강수량은 484mm로 평년 대비 61%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수지면의 경우 410mm(평년 대비 52%)에 불과해 가뭄 피해가 매우 심각한 단계로, 인근 마곡저수지(16%), 수송저수지(33.9%), 주촌저수지(40%) 등 주요 저수지의 저수율 역시 급감한 상태다.

이에 남원시의회 이기열 경제농정위원장과 장병욱 의원은 사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신속한 대책 마련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장, 남원시 부시장, 농정국장, 농정과장, 건설과장 등 핵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

를 주재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 후, 이기열 위원장과 공사 남원지사장은 수지면 가뭄 현장으로 출동해 피해 상황을 직접 눈으로 살피고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현장에서 점검, 공사는 가용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수 킬로미터 떨어진 송동면 하천에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삼단계 펌프를 설치해 수지 남창댐 앞 배수로까지 물을 공급하는 등 긴급 송수 작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기열 위원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농가들이 이번 가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남원시 관계자도 “앞으로 7월 이내에 단비가 내리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적인 비상 용수 공급과 장비 동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초등돌봄 연계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 순창발효테마파크서 순차 진행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여름방학 기간 순창발효테마파크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발효문화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순창교육지원청이 교육부의 ‘방학 중 초등돌봄 우수모델’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학교 밖 교육공간인 순창발효테마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발효를 쉽고 재미있

게 배우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학교 15곳의 학생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별 일정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은 △발효전시관·놀이관 투어 및 체험 △발효 쿠키체험 △미생물과 발효 원리 교육 등으로, 전시·놀이·체험을 연계한 참여형 콘텐츠



로 구성됐다. 학생들은 발효를 보고 만지고 만들어보는 활동을 통해 발효의 원리와 지역의 발효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하절기 ‘럼피스킨 백신 자율접종’ 집중 추진

임실군이 7~8월 매개곤충 활동 성수를 맞아 소 럼피스킨(LSD)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럼피스킨 백신 자율접종 및 방역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모기, 침파리 등 흡혈 매개곤충의 활동이 최고조에 달함에 따라, 올해부터 전면 전환된 ‘농가 자율접종 체제’의 인착을 돕고 농장 내 면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백신 공급은 축종이나 사육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없이, 관내 전체 소 사육 농가의 신청 수요를 파악하여 임실군에서 전역 무상으로 일괄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백신접종은 개편된 자율 방역 취지에 맞춰 공수의 동원 없이 농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접종을 수행하게 된다. /임실=전충영 기자

남원시, 혼불문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남원시(시장 양충모) 혼불문화관에서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이야기’를 잇는 사람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소설 ‘혼불’ 속에 담긴 다양한 설화와 이야기를 시민들이 직접 배우고 창작하는 참여형 문화 예술 프로그램으로, 문화 속 옛이야기를 보자 친숙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강연은 8월 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혼불문화관 꽃심관에서 진행, 고전문화 박사인 배이영

강사와 함께 ‘혼불’에 담긴 다양한 설화를 살펴보고, 인물과 공동체의 삶, 전통 가치관 등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다. 강연은 시민 20명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화책 제작 프로그램은 8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남원아트센터에서, 그림동화 작가 오치근 강사와 함께 ‘혼불’ 속 이야기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동화책을 제작하며, 완성된 작품은 오는 10월 혼불문화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보건소
새길 마음여정 운영

남원시 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실업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구직자들의 마음 안정을 돕고 정신건강 위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제 위기 군 심리지원 프로그램 ‘새길 마음여정’을 지난 2월부터 매월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이 우울감, 불안, 나아가 자살 사고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남원시는 관내 실업급여 수급자와 구직자들을 결해서 밀착 지원하기 위한 촘촘한 안전망을 위해 연말까지 이어가고 있으며,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우울 및 자살 사고 스크리닝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선별 △정신건강 선별검사(PHQ-2, SBQ-R) 및 옴니핏(OMNIFIT) 스트레스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과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며, 검사 결과 고위험군으로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마음건강 주치의 상담 및 정신건강 심리상담 비우쳐 등 전문 치료를 즉시 연계하고 있다.

남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는 구직자들이 언제든지 스스로 마음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무인 감진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전문 인력이 감진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고위험군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상담·치료로 연결하는 한편,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도 펼쳐 구직자들의 든든한 심리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예초기 자가
정비 기술 교육 실시

순창군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안전한 벌초 작업을 위해 예초기 자가 정비 기술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과 8월 27일 2회에 걸쳐 진행되며, 교육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소 정비실에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순창군민이며, 교육 인원은 총 20명으로 기수별 10명씩 모집한다.

주요 내용은 예초기 안전 사용 요령, 작업 전 점검 방법, 자가 정비 실습 등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은 남아 놓았는데, 여덟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